



상담 실적으로 본

국민의 AIDS 인식 정도

백 승 헌

AIDS는 금세기의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의 하나가 되어감에 따라, 근래에 들어 AIDS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출판물이 쏟아져 나오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수차례 방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물로 인하여 경각심과 더불어 많은 혼돈과 잘못된 지식의 전달이 이루어 졌고, 이에 따른 공포심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혼돈과 더불어 AIDS는 지구상의 모든 질병중에서 가장 급속한

속도로, 문화수준, 생활습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퍼져나가고 있어 온 세계인의 가슴 속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제교류가 빈번해 짐 등으로 인하여 '88. 9. 30. 현재 AIDS항체 양성자가 29명이나 발생되었으며 AIDS환자임이 판명된 사람만 4명이나 된다. 또 환자 4명과 항체 양성자 2명이 사망하여 이 불치의 병이 퍼져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이미 지난 '87. 4. 1. 부터 보건사회복지원으로 우리 협회 전국 13개 시, 도 지부에 AIDS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편 지난 '88. 서울올림픽을 치루면서 국제교류가 더욱 빈번해지는 등 외국인과의 접촉이 많아지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때 어떤 양태로 전파 만연 될지 모르는 것에 대비하여 우리협회 서울특별시 지부에서는 '88. 5. 1.부터 AIDS 검사장비를 도입하여 AIDS의 국내 유입방지 대책과 전파방지대 국민계몽의 목적을 두고 상담업무와 더불어 검사업무에도 착수했다.

전염경로 및 예방방법등에 관한 상식만 갖게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임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AIDS 지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좀더 시민과 가까이에서 검사와 상담(무료)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AIDS상담 내용 분석 및 검사실적

우리 협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AIDS에 대한 보다 올바른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 관리의사, 검사소장, 간호사, 임상병리사등 약 50여명을 대상으로 AIDS 상담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상담업무에 임하였으며 검사업무에도 착수하여 지난 5월 1월 부터 현재 까지 약 200여명의 내원 희망자에게 검사를 실시하여 의문점을 해결해 주었다.

상담업무에서는 업무에 착수하게 된 '87년 보다는 다소 적은 실적을 보였으나 아직도 꾸준한 상담전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에게 예방방법을 바르게 인식 시키고자하는 노력의 결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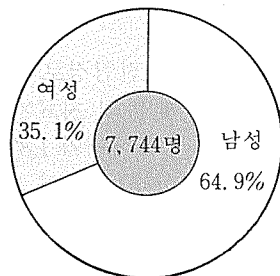
10대 청소년층의 경우 사회환경의 복잡한 때문에 성행위(동성연애)나 마약 즉 환각제를 무절제하게 사용하여 AIDS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본회 상담문의는 무기명, 절대 비밀을 지키는 가운데 임하므로 꼭 이렇다라고 밝히기 곤란한 일이나 상담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이러한 10대 청소년층에서 수학여행중이나 사회에 난무하고 있는 밀폐된 음란 비디오 상영장에서 주로 만나게 되어 호기심과 일시적인 충동을 통하여 AIDS공포의 세계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우리 협회에서의 상담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AIDS에 대한 인식정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88년 8월 말 현재 7,744명이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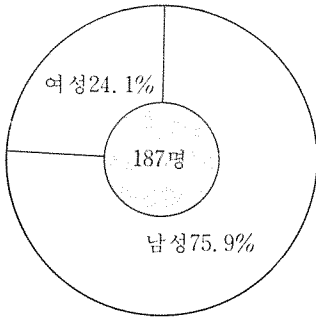
그림 1. 성별 상담자 수 비교



931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이중 남성이 5,027명으로 여성의 2,717명인 여성보다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1)

또한 검사자수에서도 '88. 9. 30. 현재 187명을 검사하였다. 이중 남성이 142명이며 여성이 45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75.9%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그림 2. 성별 검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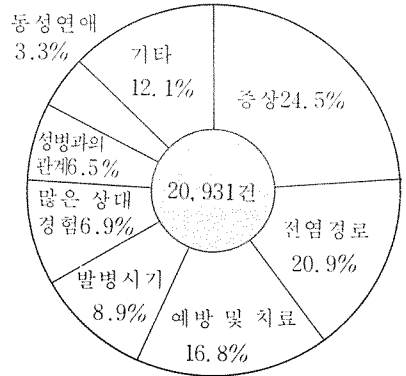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란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남성들이 그만큼 AIDS 감염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20,931건의 상담내용으로 보면 한 사람의 평균 2~건 이상을 문의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상담내용은 5,129건(24.5%)으로 증상에 대한 궁금증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전염경로가 4,380건으로 20.9%, 예방 및 치료가 3,521건으로 16.8%, 발병시기가 1,872건으로 8.9%, 많은 상대 경험이 1,452건으로 6.9%, 성병과의 관계가 1,366건으로 6.5%, 동성연애가 688건으로 3.

3%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 검사방법 및 수수료 관계, 검사기관 안내 등 기타 문의는 2,523건으로 12.1%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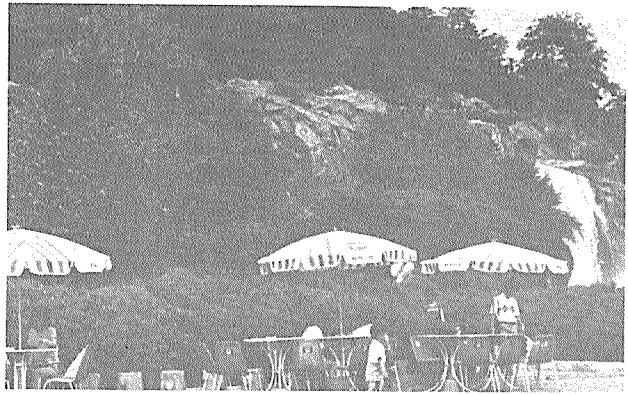
그림 3. 문의 내용별 비교표



이것은, 다른 것 보다도 우선적으로 감염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좀더 정확한 홍보와 계몽을 통해 스스로 AIDS의 위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인식을 키워 주어야 함을 느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상담을 하고 있으나 상담 내용중에는 감염이나 다른 질병에 의심이 짙은 사람도 있었고 신분의 노출이 두려워 밝하지 않는 관계로 정확한 감염여부 상담에 아쉬움이 많았으며, AIDS상담과 검사업무는 개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음을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알리는 데에도 힘쓰며 더욱 더 상담업무와 검사업무에 심도 있게 임하는 것만이 AIDS 예방과 관리대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었다.

▶ 10대 청소년의 경우
성행위나 마약 등의 사
용으로 AIDS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경
우가 많다.



또한 우리나라 옛말에 모든 질병은 95%가 마음에서부터 생겨난다고 전해지듯이 조금이라도 소홀함없이 상담과 검사업무에 응하여야 겠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맡은 이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여기에서 상담한 내용중 가장 많은 증상 및 전염경로 등에 관해 몇가지 소개코져한다.

첫째로 AIDS 증상은?

AIDS 바이러스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질병이 진행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가. 미열 및 야간 발한

나. 특별한 이유없이 10% 이상 체중이 감소된다.

다. 목·겨드랑이 또는 사타구니의 임파선이 붓는다.

라. 만성 피로감과 설사 등 입안에 반점이 생기기도 한다.

이들 증상들은 물론 다른 질환등의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다른 질환으로 설명될 수 없을 때에만 AIDS의 증상

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계속 된다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둘째, 전염 경로

AIDS바이러스가 인체로 들어오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 있는데

가. 혈관내에 직접주사(혈액으로 인한 전염)

나. 성적 접촉(정액으로 인한 전염)

다. 감염된 모체의 혈관을 통한 태아 감염의 경우이다.

위의 모든 경우에서 감염된 사람의 체액이 건강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또는 AIDS 바이러스가 혈액이나 정액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성 행위중 AIDS에 감염된 정액이 표피가 벗겨 지거나 상처난 곳을 통하여 건강한 사람의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중 가장 쉽게 전달될 수 있는 anal sex는 항문 주위의 조직이 쉽게

상처날 수 있어 AIDS 바이러스가 직접 혈관내에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되므로 가장 유의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일상적인 생활 접촉을 통해 감염된 AIDS 환자나 AIDS 바이러스 보균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 대한 AIDS 교육에 대하여 서술코져한다.

청소년들은 그 시기에 이르러 성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나타나게 되어 시험적으로 사용해보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들은 무척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급기야는 질병의 공포 속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AIDS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경각심과 AIDS에 관하여 공개적이며 솔직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모든 전문인들은 뜻을 같이하고 있다.

AIDS 상담소 이용 안내

일반 국민이면 어느 누구나 전화 또는 직접 내방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3개 시, 도지부 AIDS 상담소 또는 국립보건원 AIDS 관리센터, 전국 보건소 민원 안내실을 이용하면 되며, 검사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국립보건원 AIDS 관리센터 각 시도보건연구소 AIDS관리센터 및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AIDS 상담전화

서울특별시 지부 : 604-7007
 부산직할시 지부 : 553-6611
 대구직할시 지부 : 754-0203
 인천직할시 지부 : 884-0330
 경기도 지부(수원) : 43-8228
 강원도 지부(춘천) : 51-4400
 충청북도 지부(청주) : 3-1100
 충청남도 지부(대전) : 523-0660
 전라북도 지부(전주) : 75-0020
 전라남도 지부(광주) : 363-4040
 경상북도 지부(대구) : 953-0313
 경상남도 지부(마산) : 42-0066
 제주도 지부(제주) : 23-0110

이에 따른 모든 제반 내용은 절대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AIDS는 약 제곱의 수치로 증가 일로에 있으며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AIDS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예방법을 시행함으로써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죽음의 상징, 20세기의 흑사병 AIDS는 결코 무섭기만한 질병이 아니며 충분히 예방함으로써 나의 건강을 지킬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13개 시도지부 AIDS 상담소를 통하여 정확한 지식을 터득하여 AIDS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국민보건에 기여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본부 조사연구부)